

윤리적 동물학을 위하여

[서평] 정항균(2020), 『동물-되기』, 세창출판사, 368쪽.

전 유 정*

1. 동물에 대한 역사와 문학의 시선들

정항균의 저서 『동물-되기』(세창출판사, 2020)는 인간이 동물이라는 존재를 바라보는 ‘시선’의 문제에 대하여 일종의 계보학적 접근을 시도한다. 무엇보다 역사와 문학이라는 범주에서 인간이 자신의 정체성 규정을 위하여 어떻게 동물들에 대한 담론을 폭력적으로 구성하고 이용해왔는지를 비판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인간의 동물에 대한 시선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자기를 이해하고 세계를 해석해 왔는지와 연관된다. 그렇기에 인간이 동물로 변신되는 양상들이 갖는 의미와 이에 대한 평가의 변천사를 재구성하려는 저자의 노력은 인간중심주의적인 폭력을 벗어나기 위한 인문학적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인간의 동물-되기 서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인간과 동물의 이분법적 구분을 허물고 인간중심주의를 비판하며, 동물과 인간의 진정한 연대를 지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 숙명여자대학교 인문학연구소 HK연구교수

이에 저자는 다양한 맥락의 소위 ‘동물학적 전환’을 고찰하기 위하여 ‘시적 변신’을 끌어들인다. 문학적 글쓰기는 동물-되기에 다변적인 시각들을 반영하면서도, 마찬가지로 굴절시킨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문학은 동물에 대한 인간중심적인 폭력의 시선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윤리적 계기를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저자가 강조한 것처럼 문학작품이 쓰일 당시에 인간사회가 동물을 어떻게 평가하였는지에 따라, 그리고 동물에 대한 다양한 학문 분과 및 담론에 따라 문학작품 속 인간의 동물-되기는 상이하게 나타난다. 그렇기에 이 책은 “문학작품에 형상화된 동물 주체의 모습을 전반적인 시대사적 흐름 속에서 보여주며, 동물에 대한 인간의 의식변화뿐만 아니라 그것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 방식의 변화”(201쪽)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인간이 동물과의 경계를 허물고 자신의 주체성을 긍정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문학적 성찰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문학비평의 윤리적 역할 또한 실천하고 있다.

2. 인간중심주의적 폭력 비판

저자가 도입부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이 책은 인간중심주의가 낳은 폭력의 문제를 동물을 중심으로 되짚어 보고 있다. 크게 두 개의 축으로 그 계보학적 분석은 진행되는데, 하나는 원시사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서구 역사를 중심으로 인간이 동물로 변신하는 것에 담긴 의미의 변천을 추적하고 있다. 다른 하나의 축은 문학작품을 중심으로 동물-되기의 계보학적 양상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즉 책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의 주제는 ‘동물-되기의 역사적 고찰’이고, 2부는 ‘문학에서의 동물-되기’이다. 다시 1부의 1장부터 4장까지는 원

시시대, 고대 그리스 로마, 중세 기독교, 근대로 시기를 나누어 주제에 접근하고 있다.

1부의 1장은 원시사회에서 인간이 동물을 식량원으로 취하면서도 동시에 동물을 신으로 숭배하는 역설적 상황을 설명한다. 더불어 제의적인 맥락에서 동물-되기는 근대 이후의 그것과는 달리 긍정적 측면을 지닌다는 점이 강조된다. 2장에서 다루는 고대사회에서는 동물신이 사라지고 신과 인간, 나아가 동물들 사이에서도 위계적 구분이 생겨나는 과정을 발견할 수 있다. 3장에서는 중세 기독교사회로 접어들면서, 동물로의 변신이 어떻게 부정적 의미를 갖게 되는지가 중점적으로 분석된다. 특히 중세부터 근대 초까지 기독교 이데올로기에 의해 자행된 마녀사냥과 관련하여 동물-되기는 악마 또는 마녀의 주술행위와 연결되는 것이다. 4장에서는 데카르트가 어떻게 정신과 신체의 이분법과 더불어 인간과 동물 사이의 위계적 구분을 더욱 견고하게 정립할 수 있었는지가 고찰된다. 이제 근대로 진입한 본격적 인간중심주의는 동물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는 철학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1부의 후반부인 5장부터 8장은 특정 이론적 입장 및 주요 철학가들의 관점을 중심으로 동물-되기의 현재적 쟁점과 그것의 가능성에 주목한다. <꿈과 현실에서의 동물-되기>이라는 제목의 5장은 프로이트와 들뢰즈 및 가타리의 이론적 입장에 있어서 ‘동물-되기’가 어떻게 차이점을 갖는지에 대하여 분석한다. 특히 들뢰즈와 가타리의 반(反)정신분석적 입장은 ‘동물-되기’라는 주제적 차원에서도 프로이트의 시각으로부터 확고한 거리를 취한다. 진화론의 입장에서 보자면 인간의 동물-되기는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꿈 내지 공상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러한 꿈은 프로이트에 따르면 무의식의 세계를 탐사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정신분석의 중요한 전제라고 볼 수 있는 무의식과 표상의 문제에 있어 ‘동물’이라는 것은 매우 중

요한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경증에 시달리는 다섯살의 남자 아이가 스스로를 말과 동일시하는 것에 대하여 정신분석학적 시각은 성적 욕망 및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필연적으로 연관지어 해석한다. 즉 프로이트는 인간의 동물-되기 또는 동일시를 무의식 세계 속 인간의 욕망과 그것의 억압에 대한 ‘표상’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꿈 속에서 인간이 동물로 변신한다면 이는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며, 인간의 의식 아래에 억눌려 있는 무언가를 표상하기 위한 기호적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책의 주제가 그러하듯, 저자는 표상 및 기호에 지나지 않는 정신분석의 인간중심적 동물-되기에 비판적 목소리를 강하게 표명하고 들뢰즈와 가타리의 반정신분석적 입장에 적극 동의한다. 그렇기에 5장의 내용을 계속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요약하려 한다.

들뢰즈와 가타리에 따르면, 프로이트는 부모와 아이의 관계, 즉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는 전제를 입증하기 위해 동물을 표상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다. 들뢰즈와 가타리의 반정신분석학적 입장에서 동물은 어떤 것을 표상하는 이미지가 아니라, 인간 스스로의 동물-되기 그 자체이다. 이는 꿈도 환상도 아니며, 전적으로 실재적인 되기이다. ‘되기’라는 과정 자체는 자신과 완전히 무관한 외부적인 것으로, 즉 인간이 동물이라는 외부적인 다른 종으로 변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산을 지향한다. 그리고 이 때의 ‘자기생산’은 이미 주어진, 그리고 통일성을 이룬 정체성을 반복하는 과정이 절대로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동일성의 반복으로서의 정체성은 ‘닫힌 체계’에 속하지만, 들뢰즈와 가타리가 주장하는 ‘되기’의 과정은 동물처럼 무한한 이질적인 항들을 내포하며 이러한 항들과의 연결접속을 통해 끊임없이 변신할 수 있는 ‘열린 체계’에 다양체로서 연결접속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물-되기는 인간과 동물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양자가 비식별 영역으로 들어가면서 인간이 강렬하게 스스로를 동물로 느끼

며 자기생산을 진행하게 한다. 이때 되기를 수행하는 자는 인간이라는 주체에서 동물이라는 다른 주체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쪽에도 포섭되지 않으며 자신을 생산한다. 이를 통해 인간과 동물의 경계를 허무는 중간지대에 되기는 들어서고, 그 과정은 동일성이 아닌 창조적인 차이를 생산한다. 이러한 관점에 저자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책의 2부에서 작품 분석을 진행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론으로 이를 적용한다.

1부의 6장에서는 괴물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가장 주목해야 할 사항은 괴물이라는 혼성적 존재가 결코 시대를 초월하는 정해진 표상이나 공통된 특성을 갖지 않는다는 점이다. 과거의 기형적 인간부터 현재 대중 문화 콘텐츠에 자주 등장하는 사이코패스에 이르기까지, 괴물은 각 시대마다 다르게 정의된다. 물론 그것에 대한 가치평가 또한 각 시대의 담론적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괴물들에게는 그 시대가 정의하고자 하는 타자성, 이방성 등이 투영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괴물이 갖는 동물적 속성에 대한 해석은 종교적 맥락이 강조된 중세라든지 근대의 식민주의 욕망이 피식민자인 원주민들에게 덧씌운 이미지 등을 통해 볼 때, 각 시대의 권력 이데올로기가 사회의 비정상성으로 무엇을 규정하고자 하는지를 드러낸다. 물론 긍정적 괴물론도 가능할 것이다. 포스트구조주의 맥락에서 다원적 정체성을 띤 존재는 정성과 비정상의 경계를 문제시하고,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존재로서의 괴물적 속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7장에서 다루어지는 푸코와 아감벤의 생명정치 개념은 특히 2부의 제발트 작품 분석과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8장이 집중하는 포스트휴먼 이론의 경향성은 동물-되기의 시의적 중요성과 더불어 사유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본 서평에서 관련 쟁점이 다루어질 때 살펴보고자 하겠다.

3. 폭력적 ‘메타포’를 넘어

저자가 서론에서 밝히고 있듯이, 인간의 동물-되기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작가들이다. 문학의 세계에서 인간은 온갖 동물로 변신할 수 있지만, 그것에 담긴 의미를 해석하거나 그것에 다시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은 결코 완성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저자는 오비디우스, 레싱, 호프만, 요코, 제발트, 카프카와 같은 작가들의 문학작품 속에서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하여 재사유해 보기를 권한다. 즉 이 책의 2부에서는 문학사적 접근을 시도하며 주목할만한 지점을 보이는 문학작품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하여 동물담론의 역사적 변천과 더불어 동물에 대한 서사형식의 변화를 다룬다.

2부의 전반부인 1장과 2장에서는 동물이 인간중심주의라는 지속적 목적을 위하여 문학 속에서 편취된 흔적을 쫓는다. 동물-되기는 인간의 폭력적 이익을 위하여 메타포, 표상, 수단이 되기를 반복했다. 때로는 신화적이면서 제의적이었지만, 다른 맥락에서는 인간과 구별되기 위한 야만성을 대리해야 했다. 게다가 후자를 위해서 동물은 인간성 외부에 존재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인간의 내부에 존재하는, 따라서 극복되어야 하는 부정적 속성이 되기도 하였다.

원시시대에 인간과 동물은 같은 조상을 둔 형제자매로 간주되었다. 그렇기에 수평적 관계 속에서 동물이 인간으로 변신하거나 그 반대 과정도 가능했다. 즉 토테미즘을 기반으로 한 변신은 평등한 수평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반대로 신과 인간, 동물 사이의 위계 관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동물로의 변신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드물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인간은 신의 처벌에 따라 동물로 변하게 되는데, 이때 동물은 명확하게 인간보다 하위 존재로 위치를 지정 받게 된다.

문학 형식에서 동물에 대한 인간중심주의적 폭력과 관련하여 주목

해 보아야 할 중요한 장르는 우화이다. 우화 속 인간의 동물-되기는 어떤 인간적 특성을 나타내는 일종의 가면이다. 동물은 그것이 연상시키는 특질로 인하여 인간에게 도덕적 교훈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처음부터 강등된다. 동물은 그저 인간의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서, 인간중심주의를 위한 폭력적 메타포로만 기능하는 것이다.

우화의 역설은 동물이 인간의 도덕적 교훈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뿐이며, 정작 그 자신을 인간처럼 그 자체로 목적으로 간주되지 못한 채 수단으로 전락하는 비도덕적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로써 우화는 도덕적 가르침을 주고 전파하기 위한 교훈적 목적을 지니지만, 정작 그러한 도덕적 답론은 오직 인간에게 국한될 뿐이며 동물에게는 사회에서의 유용동물처럼 우화에서도 미학적 유용동물의 지위만을 부여할 뿐이다(204쪽).

그렇기에 우화에서는 인간이 동물로 변신하는 과정 자체는 전혀 드러나지 않게 되고, 그럼으로써 인간과 동물의 경계를 유동적으로 만들 기회 또한 삭제된다. 독자는 그저 동물에게 가해진 폭력적 메타포 뒤에 숨어 있는 인간적 특성을 찾는 데 집중하며 인식의 즐거움만 만끽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물과의 윤리적 연대를 지향하는 문학의 시선은 동물을 폭력적 메타포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작업을 다각적으로 구상하여야 할 것이다. 이 책 2부의 중반부와 후반부가 집중하는 작가들은 그러한 윤리적이면서도 시적인 작업을 적극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시적’ 변신의 윤리적 가능성

무엇보다 이 책은 요코, 제발트, 카프카가 그들의 시적 동물-되기를

통해 제시하는 서사장치의 윤리적 가능성에 주목한다. 요코는 『눈 속의 에튀드』에서 3대에 걸친 북극곰 가족의 삶을 이야기한다. 북극곰이 서술자로 등장하여 자신의 자서전을 집필하고, 동물의 시선으로 세계를 바라본다. 특히 자서전이라는 것이 근대적인 자아개념에 근간을 두면서 통일적인 정체성의 형성과정을 서술하는 것이라고 볼 때, 인간중심적인 동일자적 주체에 의해 배제된 동물이 자서전을 써내려가는 과정은 그 자체로 모순적이며 정치적이다. 그렇기에 소설에서 서술자인 북극곰 ‘나’는 자전적인 글쓰기에 회의를 느끼고, 3인칭이 1인칭으로 변화되는 등의 비관습적 서술방식으로 근대적 자아로부터의 거리감을 드러낸다. 이를 통해 요코는 “인간에 의한 동물의 억압을 비판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내부에 존재하지만 억압되어 있는 내면의 동물, 즉 야수성의 해방을 주장하기도 한다”(288쪽)고 저자는 평한다.

원시사회에서 인간이 신으로 숭배한 동물이 점점 그 지위가 하락하고 근대에 이르러서는 사물의 지위로 전락함을 이 책의 1부는 이미 살펴본 바 있다. 제발트의 『토성의 고리』에서는 문명비판적인 맥락과 더불어 인간중심주의에 의한 동물 박해의 역사가 문학적 글쓰기를 통해 심판대에 오른다. 제발트는 1차 대전과 동물사냥, 나아가 나치정권의 인간사냥에 이르기까지 가치 없는 생명을 박해해온 인간의 폭력적 역사를 문학적으로 가시화한다. 이에 대한 비평을 위하여 7장을 통해 고찰한 이론적 지점인 생명정치 개념은 결정적 지표를 제공한다. 이는 단순히 인간의 생명을 정치적 대상으로 삼는 것을 넘어선다. 타자로서의 다른 생명을 배제하는 근대 생명정치의 주요 대상은 동물이자, 그 사회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동물적 지위를 지닌 인간들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제발트는 작품 속에 동물-되기를 적극적으로 배치하면서 “인간이 우주의 주인이라는 거만한 태도를 버리고 우주의 모든 다른 생명체들과 상생하며 조화롭게 지내기 위한 선결조건”(307쪽)을 내세운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카프카의 단편소설 「자칼과 아랍인」에 대한 저자의 분석은 더욱 주목할 만하다. 특히 들뢰즈와 가타리의 이론적 고찰이 카프카 문학 속 동물 모티브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 사유의 적합성을 카프카의 작품을 통해서 다시 검증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저자의 카프카적인 변신에 대한 비평적 접근은 전체 저서의 논지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지점이다. 무엇보다 자칼이라는 동물과 아랍인, 그리고 유럽인을 둘러싼 작품 속 권력 구도는 서구 역사를 통괄하는 반유대주의는 물론, 죽음의 정치로서의 생명정치를 연상시키며 그 정치적 면모를 드러낸다. 더불어 단일한 개체가 아닌 무리로 등장하는 자칼의 속성은 프로이트적인 무의식을 길들여 통제될 수 있는 하나의 개체가 아니다. 저자는 자칼이라는 무리를 유럽 문명에 의해 길들이기 어려운 야생적인 다양체들로 해석하는 것이다: “무리를 이루며 개념적으로 포착할 수 없는 욕망의 야생성들”인 자칼-되기는 “프로이트의 정식분석에서와 같은 비유적 의미(가령 아버지나 아들을 가리키는 상징)가 아니라 실재적인 의미에서 이해되어야 한다”(326쪽). 이러한 다양체적 동물로의 변신은 단일한 정체성을 해체하고 잠재해 있는 특이자를 강렬하게 실현한다.

5. 포스트휴먼, 그리고 다시 동물-되기

언어를 구사할 수 없으면 사유도 할 수 없다는 인간중심적인 편견에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인간의 언어를 통해 동물로의 감정이입과 관련된 서사를 구성하는 작업이 어렵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 책이 주목한 문학작품들은 그 작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음을 저자의 비평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즉 문학작품이 제시하는 “시적인 변신은 개념적인 명료성을 추구하지 않고 인간중심적인

시각을 뒤흔들으로써, 오히려 개념적 정의보다 덜 허구적이고 더 지적이 될”(41쪽) 것이라는 저자의 주장이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포스트휴먼이라는 테제가 흔치 않게 논의되는 시점에서 동물은 인간의 정의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은 결코 뒤늦은 것이 아니라는 저자의 선언에 동감한다. 이제 절대자가 더 이상 인간을 정의하는 것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없고, 기계성 또는 동물성이 인간중심주의를 위해서 유사성을 띠기도 하고 적대적 지점에 놓이기를 여전히 반복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인간적이라고 규정하기 위해 폭력적으로 배제해왔던 대상들과의 관계 회복 및 연대를 구상해야 하는 소위 포스트휴먼 시대에, 동물-되기라는 문학적 계기는 새로운 윤리적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동물에 대한 문학적 재현은 단순히 인간의 동물에 대한 관점을 반영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문학적 시선이 다양한 동물-되기의 서사를 펼치며 때로는 인간의 동물에 대한 폭력에 동조하기도 하였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굴절시키려는 노력을 해주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책과 같은 비평적 시도는 동물에 대한 인간중심주의적인 태도를 끊임 없이 굴절시키며 반영하려는 문학을 경유하여, 윤리적 동물학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사유를 독려한다. 현재의 포스트휴먼이라는 현상 또는 외침 속에서, 또 어떤 시적 변신이 인간의 동물에 대한 윤리적 가능성을 확장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지는 저자의 후속 연구를 통해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